

---

## 민주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보수의 반동

장-자크 쿠를리안스키

장 조레스 재단 라틴아메리카 전망대 소장, 파리 국제관계 전략연구소 연구원, 프랑스 의회 자문위원

---

원제와 출처: Jean-Jacques Kourliandsky, "Democracia, evangelismo y reacción conservadora",  
*Nueva Sociedad*, No. 280, marzo-abril de 2019, pp. 139-146.

핵심어: 민주주의, 우파, 복음주의, 보수의 반동,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는 2014년부터 매우 독특한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페루까지, 브라질과 과테말라를 관통하여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특권을 가진 소수 집단의 이익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역설의 핵심에는 사회적 이기주의를 가려주는 문화적 도구가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이성과 설득 사이에서 그 항구적인 맥박을 유지한다. 정치적, 사회적 모순들은 정당하게 정보를 얻는 시민들과 그에 따른 선거들 간의 논쟁을 통해 민주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은 처음부터 이성과 논리의 공간을 줄이려고 애를 썼다. 가끔은 군사적으로 독재를 '정통의', '유기적인', '대중

적인, ‘참여적인’, ‘인종적인’과 같은 매우 독특한 유형의 민주주의로 내세워 수립 하기도 했다. 때로는 ‘합의를 조작하기’ 위해<sup>1)</sup> 권력을 동원하고 소수 집단의 헤게 모니를 설득의 방식을 통해 강요하며, 다양한 유형의 감정-민족, 종교, 평화주의, 유럽중심주의, 세계주의-을 집단적으로 도구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정치적 헤게모니에 대한 이 말은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종교를 도구화한다. 주로 가톨릭이나 역사적 복음주의 같은 전통적인 종교가 아니라 신흥 종교들의 경우를 말한다. 그들은 때로는 ‘세속적인’ 종교로서, 권력 형태, 카리스마적 지도자 또는 고유의 통치방식을 신성화하고, 그리 하여 라틴아메리카 통합, 유럽연합 등과 같은 일신교적 틀을 추종한다.<sup>2)</sup> 또 오순절 복음주의나 카리스마 복음주의와 같은 유형의 종교들도 있다. 이들은 냉전 시대 마지막 몇 년 동안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sup>3)</sup> 결정적인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유럽이나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이성이 침식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을 제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은 여러 가지다. 본고에서는 오순절이라는 하나의 요인에만 집중할 것이다. 이 종교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특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28일 브라질 대선에서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의 승리는 이 민주주의의 역설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보우소나루가 성공적으로 사용한 선거 수단의 하나는 강력한 카리스마 복음주의 단체와의 전술적 동맹 또는 진지한 동맹이었다.

1) David Colon, *Propagande. La manipulation de masse dans le monde contemporain*, Belin, Paris, 2019.

2) 라틴아메리카 통합과 유럽연합의 경우에 대해 각각 다음 참조. Elías Pino Iturrieta, *El divino Bolívar. Ensayo sobre una religión republicana*, La Catarata, Madrid, 2003; Antonin Cohen, *De Vichy à la Communauté européenne*, PUF, Paris, 2012.

3) 아프리카의 경우 다음 참조. Camilla Strandsbjerg, *Religion et transformations politiques au Bénin. Les spectres du pouvoir*, Khartala, Paris, 2015; Joseph Tonda, “Economie religieuse du pentecôtisme en Afrique centrale”, en *Courants religieux et rapports sociaux*, actas del seminario de la Fundación Gabriel Péri, Paris, junio de 2009.

라틴아메리카 대륙이나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시간이 갈수록 민주주의의 역학은 설득과 논쟁의 이성에 대해서는 덜 의존하고, 훈계와 무의식의 조작에 갈수록 더 의존하고 있다. 평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정치적 조정 작용을 하는 사회와 반대로, 구조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민주주의 역학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흐름과 결합된 소수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 우파와 복음주의

브라질 극우 후보 보우소나루의 대선 승리는 대부분의 오순절 복음주의 신도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지가 결정적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전적인 지지는 아니었다. 자신이 복음주의 신도라고 규정하는 브라질 유권자가 모두 보우소나루에게 투표한 것은 아니며, 복음주의 목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브라질이 ‘복음주의 전선’이라고 부르는 종교 집단은 2016년 11월 미세우 테메르의 쿠데타를 거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는 지방 의회들과 연방의회에서 활동하는 복음주의 의원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sup>4)</sup> 한편, 브라질 정치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평론가들은 복음주의 계파가 머지않은 과거에는 노동자당 정부들을 지지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는 복음주의에 의지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복음주의 교회와 사회 조정자’(CEPRES)는 2011년 10월 선언을 통해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4) Nilza Valeria Zacarias, “Precisamos falar da fé de Leonardo”, en *Le Monde diplomatique Brasil* No 125, 5/12/2017.

2018년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복음주의에 모태를 둔 '사회적 만남의 당'을 자신의 선거 연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이<sup>5)</sup> 강조점을 둔 이러한 동맹은 진보주의 또는 좌파 정당과 오순절 집단 사이에 이루어진 동맹으로, 다소 예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대다수의 오순절 신자들의 성향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오순절 신도 대다수는 좌파가 아니라 우파에 투표한다. 좌파와 복음주의 사이의 과거의 합의는 지우마 호세프 때처럼 공동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우마 호세프는 지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국교회'가 상파울루에 세운 예루살렘 솔로몬 신전의 거대한 복제 교회의 제막식에 참여했다. 한편, 니카라과 복음주의자들이 좌파 정부를 지지한 것도<sup>6)</sup> 1979년 10월 산디니스타 혁명 후 대통령이 된 오르테가가 역사적으로 주류 지배종교인 가톨릭교와 동일한 공식 지위를 복음주의에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의적절한 합의점 덕분에 각 당사자는 구체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서로 결별하게 된다.

복음주의와 좌파가 양립불가능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정학적 이유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는 미국에서 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연계된 문화적 틀 안에서 활동했고 미국적 영향의 전파자였다. 냉전시대에는 워싱턴이 이들을 도구로 삼았다. 특히 중미에서는 미국의 존재에 도전하는 이데올로기들의 침투를 저지하는 도구가 되었다.<sup>7)</sup>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제3세계

5) André Corten, "Pentecôtisme et politique en Amérique Latine", en *Problèmes d'Amérique Latine* No 24, 1-3/1997; Lamia Oualalou, *Jésus t'aime. La déferlante évangélique*, Les Éditions du Cerf, Paris, 2018.

6) 1979년 10월 5일 "500인의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된 500명의 목사들의 지지가 있었다.

7) 이것은 처음에는 "Informe Rockefeller"(1969)을 통해, 나중에는 "Documento de Santa Fe"(1980) 1권과 2권을 통해 이론화되었다. 그리고 1981년에는 복음주의 교회와 가톨릭교회의 보수 교파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민주주의와 교회 연구소"(Instituto de Democracia y Religión)의 창설과 함께 도구화되었다.

주의 등 세속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든, 해방 신학과 같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든 마찬가지였다. 이 공식적인 지원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열강 사이에 간접적인 갈등의 영역이었던 중미에서 강력했다. 1982년 복음주의 교회 신도였던 군인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가 과테말라 대통령이 된 것도 이러한 지원의 결과였다.<sup>8)</sup>

보수적인 반공산주의자 주교인 카롤 보이티야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되자 워싱턴은 해방 신학과 가톨릭교회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 1984년과 1986년의 지침에 따르면<sup>9)</sup>, ‘신앙 교리를 위한 성도회’는 “마르크스주의적 도구”의 사용을 비판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복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사립 재단들과 선교회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머지않아 이 교회들과, 지배 경제 세력들 및 그들의 당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연결점이 존재한다는 더욱 깊은 모순의 증거가 금방 나타났다. 한 개인은 자기 사유의 중심에 존재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돈과 부를 소중히 여긴다. 이들은 ‘변영 신학’이라 정의된 바에 근거하여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을 통해 신성한 축복을 얻는 것이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교회들은 종교적 기업으로 정의된다. 목자들의 지상의 사역의 성과에서부터 개개인의 지상에서의 성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10)</sup> 그래서 이들은 텔레비전에서 페이스북, 왓츠업, 트위터에 이르기까지<sup>11)</sup> IT 기술의 대거

8) 리오스 몬트는 1978년 캘리포니아 가스펠 아웃리치에 본회를 둔 ‘말씀 복음주의 교회’(Iglesia Evangélica del Verbo)의 신도가 되었다.

9) “Libertatis Nuntius”(1984)와 “Libertatis Conscientia”(1986).

10) 2018년 11월 1일 브라질 복음주의 의석이 채택한 선언문 참조. “Brasil para os brasileiros”, en *Folha de S. Paulo*, 7/11/2018.

11) Jean-Pierre Bastian, *La modernité religieuse en perspective comparée*, Karthala, Paris, 2001.

사용으로 확장된 '시장 종교'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시장의 세력 및 그 대표자들과의 수렴을 용이하게 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 의회에서 자신의 선거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 브라질에서는 복음주의 의회전선이 만들어져 여러 정당들에 들어갔고 오늘날 91명의 대표가 있다. 그러나 페루의 경우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움베르토 레이 선 목사의 국가부흥당을 통해 고유의 정당을 만들어 여러 의회에 들어갔다.<sup>12)</sup>

오순절 교회들은 긴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전파한 윤리적 규범들인 겸허, 겸손, 검소, 가난 등의 개념들과 단절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찾고, 악과 사탄으로 이끄는 일탈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설정의 필요, 즉 성서를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신들의 담론을 정당화한다.<sup>13)</sup> 그리고 이 양극화된 담론은 종교 간 대화를 차단한다.

브라질에서, 그리고 아이티에서도 이 교회의 신도들은 아프리카식 숭배의식을 악마적이라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믿는 사람들까지 공격하게 되었다. 반대로, 성서적 이스라엘과 현재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연대를 표현한다. 브라질 만국 교회는 교회당을 지을 때 유대 사원인 시나고그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양식을 채택했다.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힘은 몇 달 전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과 함께 하여 자국의 텔아비브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는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신임 브라질 대통령도 여기에 동조하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사관 이전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온두라스 복음주의친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 온두라스 정부의 결정

12) Véronique Lecaros, *La conversión al evangelismo*, puc, Lima, 2016.

13) Andrea Dip, *Em nome de quem?*, Civilização Brasileira, Rio de Janeiro, 2018.

에 박수를 보냅니다. (...)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모든 나라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주의 성서적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시편 122:6).<sup>14)</sup>

이러한 종교적 편협에는 엄격한 도덕 질서의 존중이나, 교과에 따라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규범과 같은 배척의 태도가 동반되게 된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장으로 선출된 하나님의 세계 교회 주교인 마르셀로 크리벨라는 카니발 축제에 대해 고해성사를 통해 비판하고, 이 행사를 위한 시의 재정 지원을 삭감했다. 이 모든 교회-정당은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선거의 본선에서 거의 40%를 득표한 코스타리카 국가부흥당의 복음주의 후보인 파브리시오 알바라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세속적 국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국가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무신론적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 코스타리카는 정치인들에게 확실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영망으로 만들지 말고, 다시는 아이들을 영망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음과 같은 주장도 했다. “우리는 성적 소수자라는 아젠다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 남녀 간의 혼인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되도록 합니다.”<sup>15)</sup> 그 결과 전통 문화의 마치스모적인 요소가 성공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쿠바의 헌법 논쟁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다. 쿠바에서는 토론에서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14) “Confraternidad Evangélica de Honduras pide a joh que traslade embajada a Jerusalén”, en *Confidencial* *hm*, 3/5/2018.

15) “El ‘shock religioso’ que puso a Fabricio Alvarado, predicador de una iglesia evangélica, como favorito para las elecciones presidenciales de Costa Rica”, en *bbc Mundo*, 5/2/2018; Gerardo Ruiz R., “Fabricio Alvarado: ‘Nunca más se metan con la familia’”, en *La Nación*, 4/2/2018; Sofía Chinchilla C., “Fabricio Alvarado: ‘Nunca dije que fuera la primera opción’ salirse de la Convención de Derechos Humanos”, en *La Nación*, 20/2/2018.

기초 단위의 압력을 받은 쿠바 의원들은 2019년 1월 신 헌법 조문에서 평등한 결혼 프로젝트를 철회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 종교의 '사업가들은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 맞게 시장 민주주의를 잃어낼 것을 제기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기 시작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신자유주의적, 급진적 극우파와 그들 사이에 유대를 용이하게 했다. 그리하여 '국가적 복음주의'라고 칭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혼종이 만들어졌다.

보우소나루는 가톨릭을 버리지 않았지만 복음주의 세례를 받았다. 라틴아메리카 복음 연구소에서 공부한 지미 모랄레스는 과테말라 대통령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알바라도는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두 대통령 중 하나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에스페란사 운동' 소속의,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복음주의 후보 하비에르 베르투치가 2018년 5월 대선에서 10.8%의 지지율을 얻었고, 콜롬비아에서도 알바로 Uribe 전 대통령과 그의 중도민주당 배후에 있는 복음주의 운동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사이의 평화 협상에 대한 자문에서 결국 그 균형을 뒤집었다.<sup>16)</sup>

## 브라질은 실험실인가?

브라질은 나라의 규모 때문에, 그리고 무관용, 권위주의, 신과 같은 존재 보우소나루 등의 담론을 내놓은 후보가 대통령직에 오른 것의 민주적이면서도 놀라운 특성 때문에 특별한 시험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말 그의 대선 승리를

16) Talita Bedinelli, Ana Marcos y Javier Lafuente, "La fe evangélica abraza las urnas en América Latina", en *El País*, 13/4/2018; Sally Palomino y A. Marcos, "El botón de los votos cristianos en Colombia", en *El País*, 19/1/2018.

이해하기 위해 제기된 설명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논평에는 설명이 없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플라나우투 대통령궁의 새 입주자에 대해 ‘데마고그’, ‘포폴리스트’, ‘열대의 트럼프’, 또는 단순히 ‘파시스트’라고 소개하는 그 수식어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어휘들은 설명적 의미가 아니라 경멸적인 태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도 극우 인물, 어쩌면 민속적인 인물로 보였던 하원이 대권을 차지하게 된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는다.<sup>17)</sup>

우리는 이 여러 규정들이 갖고 있는 부분적 진실을 과소평가하지 않은 채 종교적 요인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종교적 요인은 (종교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 바깥에서는) 연구된 적이 거의 없다. 최근의 선거의 의미를 표면적으로 보자면, 어느 누구나 승리한 후보의 담론에 있어서 성서를 참조점으로 삼은 흔적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그의 정부 플랜 첫 장부터 신이 나온다.<sup>18)</sup> “모든 이의 위에 있는 주님.” 그리고 첫 페이지 하단에 요한복음의 인용문이 달려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018년 10월 28일 밤 승리한 것을 알게 되자마자 보우소나루는 첫마디에 신을 언급했다. “나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곁에 주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한손에는 헌법서를, 다른 한손에는 성서를 들고 있었다.

이 연설은 그의 입후보를 지지한 오순절 목사들에게 암묵적인 메시지의 윙크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2016년 이스라엘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2016년 5월 12일 그는 사회기독당의 리더이자

17) 보우소나루는 2016년부터 자유사회당(Partido Social Liberal) 소속이다. 그는 기독교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개혁진보당(Partido Progressista Reformador), 브라질 진보당(Partido Progressista Brasileiro), 브라질 노동당(Partido Laborista Brasileiro), 자유전선당(Partido del Frente Liberal), 국민당(Partido Popular), 사회기독당(Partido Social Cristiano) 소속이었던 적도 있다.

18) “O caminho da prosperidade”, Proposta de Plano de Governo, 2018.

‘신의 총회’ 목사인 에베랄도 페레이라 목사에 의해 요르단 강물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의식은 유튜브로 촬영되어 방송되었다. 보우소나루는 특히 교육 및 가족과 관련하여 카리스마 교리의 기본 요소를 자신의 정부 플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난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복음주의의 지지를 얻었고, 많은 목사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명료한 메시지를 내놓은 사람에게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전직 대위인 보우소나루가 그들이 처음으로 배팅한 정치인은 아닐 테지만, 만국 교회는 자신의 ‘레코드 TV’ 채널을 통해 보우소나루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아마도 보우소나루가 복음적인 표현을 선택했다는 점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진리의 길’, ‘개인과 가족, 군에 바탕을 둔 겸손한 자유주의’를 제시했고, ‘타락한 이데올로기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그람시 사상’, 좌파, 브라질노동자당, 상파울루 포럼 등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세속적 세상을 오순절 교회가 이해하는 성서적 진리로 바꾸는 데 기초를 둔 예언자적 캠페인을 벌였던 셈이다.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구는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을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신성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다른 신앙 방식들에 대해 사용하는 편협성을 수단으로 삼아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난했다. 그들을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악마화했다. 진리의 기탁자인 자신은 다른 후보들과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오류의 길을 추종하는 세력이었다. 예비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토론을 하던 날, 다른 모든 후보자들은 글로부 TV에서 토론을 벌였으나 보우소나루는 예외였다. 그는 같은 시간 만국 교회 채널인 레코드 TV에서 서둘지도 않고 말을 할 기회를 가졌다.

선거 편의주의 때문이든 스스로의 확신 때문이든 보우소나루는 국가 복음주의 극우의 대리인으로 통치를 시작한다. 물론 권위주의, 종파주의, 서구주의,

반공산주의, 경제 자유주의와 같은 고전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치는 오순절이라는 발판과 접합되었고, 따라서 1939~1975년의 스페인 프랑코 체제에 대한 ‘국가 가톨릭주의’라는 이름을 참조하여 이 정부를 ‘국가 복음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조치들은 이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복음주의 목사인 다 마레스 알베스 여성 가족 인권부 장관은 가족이라는 전통을 “끔찍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옹호했다.<sup>19)</sup> 대통령은 취임식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스타 게스트로 초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복음주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각별한 위상을 확인했다. 보우소나루가 채택한 관점은 복음주의 의식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복음주의 관점은 2017년 12월 7일 브라질 공화당의 조니 마르쿠스 부국장이 BBC 브라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다. “예루살렘은 항상 유대인의 성스러운 도시였고, 그리스도인의 성도였다.”

기독교의 가장 창조적인 요소들에 호소함으로써 다수의 무의식을 놓고 벌이는 이 싸움은 브라질을 넘어서서 이미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sup>20)</sup> 및 세계의 다른 지역들로<sup>21)</sup> 확장되는 현상이다.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확연히 관찰된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오순절 신앙의 성장은 이러한 세속 세계가 침식되어 가는 경로의 일부다. 대중매체의 통제는 두려움을 수단화함으로써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득하거나 감소시키거나 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쿠데

19) “Ministra de Derechos Humanos de Brasil se dice ‘terriblemente cristiana’”, en *La Vanguardia*, 2/1/2019.

20) Amy Erica Smith, “For Latin America’s Evangelicals, Bolsonaro Is Just the Start”, en *Americas Quarterly*, 12/11/2018.

21) 아프리카의 경우는 다음 서지를 참조할 것. Bettina Rühl, “Christliche Nächstenhiebe”, en *IPG.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28/12/2018.

타나 사회 폭력의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서열화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덮어놓은 사회 균열은 심화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 균열은 서서히 압력이 누적되어 가면 중국에는 외견상 잠들어있는 사회적 화산을 일깨우게 된다.

조영실 옮김